

03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교수·학습 계획 미술로 깨우는 생태 감수성

차시	1차시	교과서 쪽수	16~17쪽
수업 목표	생태 감수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진행하며 생태 감수성을 함양한다.		
준비물	교과서, 활동지 등		

교수·학습 과정

도입

- 생태 감수성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 자연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환경 문제를 두고 심각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일까?

전개

- ① 생태 감수성을 담은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며 건축, 회화,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생태 감수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감상한다.
 - 교과서 단원 외의 페이지를 살펴봄으로써 생태 감수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찾아본다.
- ② 자연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기
 - 모둠원과 함께 자연의 형태와 움직임을 관찰한 뒤 자연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
- ③ 활동 결과물 발표하기
 - 모둠원들과 함께 만든 창작물을 발표한다.
 - 다른 모둠원들은 자연을 어떻게 관찰하고 몸짓으로 표현했는지 감상한다.

정리

활동 후 자연의 입장에서 감상하고 표현한 작품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감상과 표현 활동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이입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평가 요소	생태 감수성을 함양함에 있어 미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발견한 생태 감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생태 감수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표현 활동을 구상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 방법	직접교수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교과서 작품 해설

1 IMJ 나무위의 집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IMJ)의 청소년관 입구 안뜰에 위치한 목재 조형물이다. 소나무의 기둥을 살린 목재 구조물과 지형을 그대로

나를 둘러싼 세계

03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미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 1 자연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 2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3 환경을 변화시키는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과 산, 들꽃과 풀 등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시작이자 바탕이므로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생태 감수성이라고 한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태 감수성이 지닌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IMJ 나무 위의 집(이스라엘/2014년) 이스라엘 박물관의 청소년관 안뜰이다. 대지와 나무를 보호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16

로 둘러싼 고무 표면은 나무와 나무의 땅속 뿌리를 보호한다. 환경을 섬세하게 생각한 이 작품은 콘크리트와 석조 건축물로 이루어진 건축 환경과 대조를 이루며 방문객 모두를 위한 열린 장소를 제공한다.

▶ IMJ 나무 위의 집의 내부

2 슈무(김주연), 낮잠2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며 잠에 든 동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작품 안에서 편안함과 자유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인간과 생태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 달콤한 꿈5, 팬더 (우드컷/30×30cm/2020년)



키워 보자! 생태 감수성

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 활동과 미술 체험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워 보자.

- 1 자연에서 아름다움 찾기
 - ▲ 조세랑(한국/1977-) 끈기(종이에 수묵 채색/56×138cm/2018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풀잎을 활용해서 세롭게 세운 바리본 작품이다.
- 2 자연에 감정 이입하기
 - ▲ 슈무(김주연/한국/1994-) 낮잠(우드컷/35×56.5cm/2019년) 나무 한편을 조각한 작품이다. 멸종 위기 동물들이 편안히 휴식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 3 환경에서 아름다움 찾기
 - ▲ 조세랑(한국/1977-) 끈기(종이에 수묵 채색/56×138cm/2018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풀잎을 활용해서 세롭게 세운 바리본 작품이다.
- 4 환경에 관한 지식 율리기
 - ▲ 김혜빈 외 5명(학생 작품) 바닷속 사랑 이야기(부본/종이에 채색/27×54cm) 주인공 해파리의 사랑 이야기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동화책이다.

예술적 체험으로 UP

환경에 관한 지식 율리기

▲ 김혜빈 외 5명(학생 작품) 바닷속 사랑 이야기(부본/종이에 채색/27×54cm) 주인공 해파리의 사랑 이야기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동화책이다.

17

표현 활동 더하기 멸종 위기 동물을 소개합니다

준비물: 나무판, 못, 색실, 가위
제작 과정

- ①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물을 조사한다.
- ② 멸종 위기 동물 중 하나를 선정하여 동물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한다.
 - 멸종 위기 동물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러스트
 - 멸종 위기 동물 문자도
- ③ 여러 채색 도구로 채색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 (위) 원운서(학생 작품) 흑고니를 소개합니다(종이에 채색/27.5×55cm)
(아래) 전주현(학생 작품) 한국 표범(종이에 채색/27.5×55cm)

7. 지식 창고 | 식물을 자세히 바라보자, 보타니컬 아트(Botanical Art)

보타니컬 아트는 식물의 형태, 색상과 생활 주기 등의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는 예술 장르이다. 식물과 관련된 정보와 기록 없이 식물이나 꽃 이미지를 섬세하게 묘사한 그림을 뜻하기도 한다. 식물의 세부 사항과 과학적 정보를 알 수 있어 예술과 과학이 통합된 장르라고도 한다.

▲ 에레트(Ehret Georg Dionysius /독일/1708-1770)
목련종: 라벨이 붙은 꽃 부분, 과일과 씨앗이 있는 꽃 줄기 (에칭/51×35cm/1737년경)

교수·학습 계획 미술로 표현한 환경의 위기

차시	1차시	교과서 쪽수	18~19쪽
수업 목표	환경의 위기를 드러내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구성한다.		
준비물	교과서, 활동지, 노트북, 휴대 전화 등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 본다.
 - 나는 하루에 일회용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 나는 언제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가?

- 전개**
- ①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 오염 문제를 다룬 작품 감상하기
 -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아본다.
 - 교과서 예시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②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룬 작품 감상하기
 -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기후 위기와 해수면이 상승하면 야기 되는 문제점을 토론해 본다.
- ③ 모둠원과 함께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 구성하기
 -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주제로 삼아 모둠원과 함께 만드는 작품을 구성한다.

- 정리**
- 환경 위기를 다룬 여러 작품을 감상한 후에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모둠이 구성한 작품에 담긴 의미 또는 생각 발표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감상과 표현 활동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 위기 문제를 다루고 그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평가 요소	환경 위기를 표현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 주제와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작품을 감상한 후 환경 위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모둠원과 함께 환경 위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 방법	직접교수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교과서 작품 해설

1 덴추 제이미 시푸, 죽은 고래

필리핀 그린피스에서 세계 고래의 날인 2월 18일 마닐라 해변에 설치하였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하여 길이 15m에 달하는 고래 형상을 만든 작품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생물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표현하였다.

환경의 위기를 생각하는 미술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과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도 생태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생태 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을 살펴보고 환경 위기를 생각하는 미술 작품을 함께 제작해 보자.

지도에 없는 섬

태평양에는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있다. 적도의 고기압으로 발생한 소용돌이가 바닷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빨아들이며 생긴 섬이다. 90%가량이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인 이 섬은 2011년쯤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였지만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확대되었다.



▲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해안 생물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 태평양에 플라스틱이 모여서 생긴 섬 모습



▲ 고아린(학생 작품)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가 우리를 먹는다(비데, 종이에 채색/39×27cm)



▲ 덴추 제이미 시푸(Denchu Jaime Syfu/필리핀/2005-) 죽은 고래, 그린피스(비데/플라스틱/3×22×3m/2018년)

18

• 지식 참고 | 먹지 못하는 아이스크림?

얼핏 보았을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사실 대만에 있는 수질 오염지 100곳의 물을 떠 와 아이스크림 모형으로 만든 프로젝트이다. 폐 그물, 담배꽂이, 비닐, 플라스틱 조각까지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 흥이천, 귀이홀, 청위티(Hung I-chen, Guo Yi-hul, Cheng Yu-ti, 대만 예술 대학 시각 디자인과에 재학생 3인이 제작한 졸업 작품)

기후난민

기후난민은 기후위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말한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최고 해발 고도가 4-5m이다. 이 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1년에 5mm씩 잠기고 있어 국민 전체가 기후난민이 될 위기에 놓였다. 기후난민은 무발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는 미국 마이애미와 보스턴, 중국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예견된 일이다. 누구나 기후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된 집을 바라보는 투발루 주민



▲ 김진아(학생 작품) 육식의 나비 효과에 채식(20×10cm) 햄버거를 펼치면 육식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다.



▲ 지난 30년 동안 북극에서 가장 두꺼운 얼음의 95%가 녹아 사라졌다. 북극의 동물들은 집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 박민서 외 4명(학생 작품) 지구 온난화의 공포 (혼합 재료/60×45×45cm)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해수면의 높이가 평균 9.1cm 상승하였다. 해수면 상승 문제를 표현한 작품을 함께 살펴보자!



▲ 니티비르타·야호, 선(57°59'N, 7°16'W)(LED 설치/가변 크기/2018년)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미래에 건설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설치한 작품이다.

19

2 고아린,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가 우리를 먹는다.

인간이 버린 폐기물이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폐포 폴라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표현하였다.

3 니티비르타·야호, 선(57°59'N, 7°16'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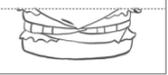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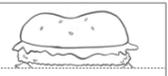
스톡홀랜드 아우터헤브리디스 제도에 설치한 작품이다.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상승할 해수면 높이를 예측하고 미래의 해수면을 LED 조명으로 표현하였다. 기후 변화가 해안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며 해수면이 상승하는 환경 문제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



◀ 선(57°59'N, 7°16'W)(LED 설치/가변 크기/2018년)

4 김진아, 육식의 나비 효과

육식과 관련된 영상을 감상한 후 육식이 미치는 나비 효과를 반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가로로 4등분하여 접은 종이를 펼치면 햄버거 그림이 길게 늘어나 햄버거 사이에 숨어 있던 육식을 경고하는 그림들이 나타난다.



▶ 햄버거 반전 그림 도안 예시



▲ 관련 영상: 지식체널-e <햄버거 커넥션>

표현 활동 더하기 해양 생물 반전 그림

- ▶ 준비물: 활동지, 사인펜, 색연필, 연필, 지우개 등
- ▶ 제작 과정
 - ① 햄버거 반전 그림과 같은 양식으로 4등분할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한다.
 - ② 종이의 양 끝 부분에 해양 생물의 머리와 몸통을 그린다.
 - ③ 해양의 버려진 쓰레기로 고통 받는 해양 생물의 영상과 기사를 조사한다.
 - ④ 반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를 펼쳐 여백에 해양 생물의 몸속에 가득한 쓰레기를 그리고 채색한다.

• 지식 참고 | 만조선 프로젝트(HighwaterLine Project)

2007년, 작가 모셔(Mosher, Eve)가 뉴욕시에서 최초로 구상한 이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파란색 분필 선을 그리는 세계적인 퍼포먼스이다. 작가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여 여러 단체와 커뮤니티가 모여 기후 변화에 맞서 회복력을 키우고자 한다. 지역 사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홍수 피해 지역을 따라 주민 공동체를 만들고 과제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지에서 워크숍과 공공 예술 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4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실시한 만조선 프로젝트

교수 · 학습 계획 미술로 피어난 지속가능한 발전

차시	1차시	교과서 쪽수	20~22쪽
수업 목표	1.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2. 감상한 작품을 바탕으로 미술이 지닌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반영할 수 있다.		
준비물	교과서, 활동지, 노트북, 휴대 전화 등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는가?
 -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전개**
- 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하여 만든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한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자연의 성장과 치유를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 ② 단원의 작품과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 중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이 있는 작품을 찾아 주제 이야기하기
 - ③ 미술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규칙 정하기
- 정리**
- 미술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두고 함께 이야기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미술실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과 규칙을 정하여 단순히 일회적인 수업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평가내용	평가수준
평가요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작품 감상과 연결지을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미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미술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방법	직접교수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교과서 작품 해설

1 용만스, 등자·감수성

네덜란드 출신 작가 용만스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쉽게 버리는 폐품을 이용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구현하였다. 비닐과 버블 랩, 포장재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제작하고 초상 사진을 찍었다. 작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든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인식을 바꾸고자 하였다.

내 손에서 피어나는 지속가능발전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목표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담은 미술 활동을 진행해 보자.

1 버려진 재료로 만들어 볼까?



▲ 용만스(Jongmans, Suzanne/네덜란드/1978~) · 등자·감수성(디지탈 프린트/75×60cm/2015년) 작가는 버블 랩이나 과일 포장지, 비닐봉지 등 버려지는 것으로 중세 시대의 의상을 재현했다. 무분별하게 소비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표현했다.



▲ 브래드포드(Bradford, Robert/영국/1970~) · 푸루(혼합 재료/100×78×110cm/2012년) 버려지는 장난감을 이용해 다채로운 색감의 조각품을 제작하였다.

미술실에서 버려지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요.



▲ 전진경의 3점(학생 작품) 폐품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밴드마크(매종이 상자에 채색/50×45×54cm) 재활용이 불가능해 버려진 매종이 상자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의 밴드마크를 제작하고 전시한 작품이다.

▲ 바하강(Barriga, Vanessa/브라질/1993~) · 해양 테피스트리(매종유/2018년) 작가는 공장에서 버린 모직물의 실을 풀어 생태계 파괴로 죽어가는 산호를 표현하였다.

20

2 바하강, 해양 테피스트리

포르투갈 출신 작가 바하강은 해안 지역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해양 오염과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작가는 카펫 공장에서 버려지는 양탄자와 실, 자수 등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산호를 만들며 섬유 산업으로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표현하였다.



▶ 바하강의 작품 제작 모습

3 IBUKU 스튜디오, 그린 스쿨의 아크

아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그린 스쿨 캠퍼스의 건물이다. 나무로 제작한 이 건물은 거대한 규모를 지니었기에 스포츠는 물론 예술 공연, 문화 행사, 지역 사회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활용된다. 자연을 재료로 활용하고 통풍과 빛을 받는 데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린 스쿨의 철학을 알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에서 제정한 이 17가지 목표는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인류 보편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사회 경제 문제 등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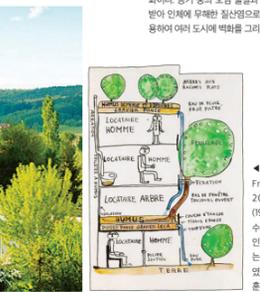
3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다



▲ 김민서 외 3명(학생 작품) 자연 도서관(혼합 재료/140×50×60cm) 나무 그늘을 2층의 휴식 공간으로, 바위를 사방들이 있는 의자로 구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서관을 모형으로 만들었다.



▲ 시나 도시 슬로푸드 중 플란트 베르베르(벽화/2020년) CI에서 개발한 인산화 타이타늄이 함유된 공극에 페인트로 그린 벽화이다. 공기 중의 오염 물질과 미세 먼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 무해한 질산염으로 분해된다. CI는 이 페인트를 활용하여 여러 도시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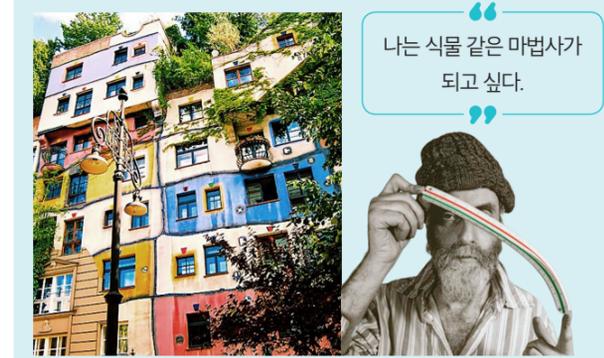


▲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Friedensreich/오스트리아/1928-2000) (좌) 바트 볼푸마우 호텔(1997년), (우) 나무 새마을(중)이 수제(1976년)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이 지은 건물에 나무가 볼 수 있는 공간, 나무 새마을을 추구하였다. 식물과 함께하는 건축 설계는 훈데르트바서 건축의 핵심 요소이다.

21

•작가를 소개합니다 | 자연의 미술가 훈데르트바서

훈데르트바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건축가, 환경 운동가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로 회화와 건축, 조각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작품 활동을 펼쳤고 적극적으로 환경 운동을 전개하며 인간과 자연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은 유기적인 흐름이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과 강렬한 색채가 두드러지며 개성적인 작품으로 생명의 다양함과 무한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는 식물 같은 마법사가 되고 싶다.”

▲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Friedensreich/오스트리아/1928-2000)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아파트/거번 크기/1985년)

• 지식 참고 |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가지

- 1 빈곤 종식: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2 기아 해결: 목표 2. 기아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 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 3 건강과 복지: 목표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4 양질의 교육: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증진한다.
- 5 성평등: 목표 5.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6 청정한 물과 위생: 목표 6. 모두가 물과 위생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보장한다.
- 7 저렴한 물과 위생: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 8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9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9. 복원력이 높은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10 불평등 해소: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 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 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한다. 더불어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 16 정의, 평화, 포용적인 제도: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17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출처: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한국국제협력단 KOICA, 2016)

01 생태 감수성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할 때 미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자연과 내가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적 체험보다 환경과 관련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③ 다양한 표현 활동과 예술적 체험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미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④ 미술로는 자연에 감정 이입을 하는 활동을 체험할 수 없다.

02~05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 02 생태적 관점에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미술 작가들이 있다. ○×
- 03 최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제작되고 있다. ○×
- 04 생태 미술은 자연 환경을 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다. ○×
- 05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술 분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

06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는 무엇인가?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는 ‘비엔나 알저바르슈트라에 빌딩 거주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도시의 빌딩 안에 수직 정원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며 그 장점을 설명하였다. 빌딩 사이 숲은 공기를 정화하고 메아리 효과를 줄여 거리의 소음을 감소시키며 스크린과 같은 역할로서 안전한 느낌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인간이 정원에서 자연의 일부와 공존하여 아름다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도시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식물을 훈데르트바서는 @라고 하였다.

- ① 옥상 정원 ② 나무 세입자 ③ 그린 하우스 ④ 식물 정화 시스템

07 보기의 내용과 같이 건축과 생태계의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미술을 무엇이라 하는가? ()

- ① 정크 아트 ② 대지 미술 ③ 생태 건축 ④ 환경 인포그래픽

08 대지 미술과 생태 미술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우리가 만든 업사이클링 정원 식물 성장 일지

내가 키운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하고 성장 일지를 적어 봅시다.

나의 식물 이름:

일시: 관찰 장소: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일시: 관찰 장소: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일시: 관찰 장소: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일시: 관찰 장소: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